

현대차, 내달 '인증 중고차' 판매 중고차시장 '新성장기' 맞이하나

완성차업체 중고차사업 진출 속도
기존 업체들 품질관리 등 대응 나서
시장 규모 연 7%대 고성장 전망

모빌리티 시장이 새로운 성장기에 접어들 조짐이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둔 가운데, 중고차와 렌터카 업체들이 새로운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다음달부터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 용인과 경남 양산에 중고차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2019년 중고차가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된 이후 꾸준히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오랜 유예 기간도 거쳤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를 파는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수입차 업체는 대부분 '인증 중고차'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시장에 뛰어들었다.

KG모빌리티도 최근 중고차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상태다. 이미 KG모빌리티보다 규모가 큰 수입차 업체도 무리 없이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만

큼,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사업을 하는 이유는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브랜드와 품질 관리 차원이라는 게 중론이다. 상품성과는 다른 이유로 지나치게 '값가'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중고차라도 품질 좋은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려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차는 5년, 10만km 이내 중고차만 취급할 예정이다. 수입차 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준으로 인증 중고차를 매입하고 있다. 판매 규모도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인증중고차가 마케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는다. 때문에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체 실적을 높이기 보다는 중고차 시장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진다.

하나증권은 '모빌리티, 시장 재편의 기회를 보자'는 보고서를 통해 중고차 시장이 연 7% 고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고차 공급이 늘어나는 데다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면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카와 새로 중고차 사업에 진출하는 롯데렌탈을 관심종목으로 지목하고 목표주가도 상향 조정했다.

중고차업계에서도 경쟁력 제고하며 기회를 선점하려는 모습이다. 리본카를 운영하는 오토플러스는 당초 현대차 중고차를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차종을 대폭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장에 대해 글로벌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을 차별화했다. 다른 중고차 업계와 함께 라이브 쇼핑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대된 비대면 수요를 위한 전략도 이어간다.

중고차업계가 모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도 신뢰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17년부터 운영한 실패물 중고차 플랫폼 '코리아카마켓' 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장마철에는 침수차를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소통 노력도 지속 중이다.

중고차 성장은 렌터카로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다. 렌터카 업체가 중고차 주요 공급처이기도 하지만, 중고차와 같이 신차의 대안이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중고차 시장 확대에 차량을 매각하려는 소비자들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부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창범 상근부회장 등과 함께 현충탑 분향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경협, 본격 출범... 전방위 조직쇄신 착수

산자부 기관명·정관변경 승인
김창범 신임 상근부회장 선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로 출범한다. 이름은 물론 조직을 재 정비하고 전방위적 쇄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경협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관명과 정관변경 등 승인신청 허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날부터 한경협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한경협은 1961년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주도해 설립됐다. 1968년 전경련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55년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경협은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하며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쇄신안을 임시 총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탈퇴했던 4대그룹 계열사들도 대부분 복귀했다. 주무 관청인 산업부가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우선 신임 상근 부회장으로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선임하면서 첫 발걸음을 뒀다. 전경련에서는 상근 부회장이 한경연 원장을 겸임하며 실무를 추진하는 핵심 자리였지만, 김병준 상근 고문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동안에는 공백으로 남겨뒀던 2월 권태신 전 상근부회장이 퇴임 후에는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김 부회장은 주요 경제단체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외교 관료 출신이다. 2021년 현대차 자문역을 역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 관련 경력이 없다. 1981년 외무부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이전비서관과 주벨기에 및 유럽연합 대사,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지냈다.

재계에서는 한경협이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한경협은 김 부회장이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경험과 지식이 탁월하다며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정계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류진 회장과 시너지도 기대된다.

류 회장이 첫 공식 행사를 통해 한경협 행보를 본격화했다. 18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 대통령과 함께 수출 정책을 펼치고 무역협화장 등을 역임한 고(故) 남덕우 전 국무총리, 포항제철을 설립하고 전경련 부회장 등을 지낸 고(故)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도 참배했다.

류 회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위국헌신을 받들어 G7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한국 경제 글로벌 도약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으며 한경협 핵심 철학인 '위국헌신'과 '기업보국'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류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은 순국선열과 선배 경제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찾아뵈었다"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대에서 G7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경협은 산업부 허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쇄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명뿐 아니라 조직 개편과 윤리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 중이다.

/김재웅 기자 juk@

LS마린솔루션, 케이블 사업 등 실적·수주 '날개'

비금도 해저 케이블 매설 포설 계약
아태지역 해저 광케이블 유지보수

LS마린솔루션이 최근 비금도 해저 케이블 매설 계약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저 광케이블 유지보수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S마린솔루션은 지난달 29일 LS전선과 '비금도 해저 연계 사업'의 포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전남 신안군 비금도 태양광발전단지과 안좌도 사이 약 7km 해저 구간에서 전력케이블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LS전선이 올 1월 터키(통합발주) 방식으로 수주했다.

LS마린솔루션은 전체 프로젝트 중 케이블을 해저에 설치하는 포설에 참여한다. 해저케이블 전문 포설선 GL



LS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

2030이 투입되며, 계약 금액은 30억원이다.

GL2030은 선박위치정밀제어(DP·Dynamic Position)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설의 정확성을 높이고, 바람과 높은 파고 등 기후 변화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비금도에 이어 지난 8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저 광케이블 유지보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작년 매

출(428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연간 130억원의 고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전망이다.

LS마린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매출 265억원, 영업이익 70억원, 순이익 62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20년래 최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수주 역시 상반기에만 600억원을 기록, 이미 지난해 매출(428억원)을 150% 가까이 넘어섰다. 국내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본격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적과 수주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7800~7900원이던 주가는 현재 1만1000원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웅 기자

기아, '위블 비즈' 운영지역 확대

기아가 전기차 공유 서비스 '위블 비즈'의 운영 지역 확대에 나선다.

기아는 전기차 공유 서비스 '위블 비즈'를 기존 경기도 화성시, 광명시, 경상남도에도 이어 강원도 홍천군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위블 비즈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해진 업무시간 동안 전기차를 구독해 평

일 업무시간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개인이 출퇴근 혹은 주말 레저용으로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는 친환경 공유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많지 않은 군 단위 지자체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홍천군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 상인, 공무원 등

으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협의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업, 공공기관, 지역 주민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두산에너지빌리티, 서부발전 기술교류 MOU

발전소 운영 최적화 상호협력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서부발전과 김포열병합 설비안정화 및 태안 IGCC 책임정비를 위한 기술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15일 경기도 분당두산타워에서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등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체결식에서 두 회사는 김포 열병합발전소와 태안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발전소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약속했다. 한국서부발전은 2개 발전소 운영 주체로서 각 설비



15일 경기도 분당두산타워에서 열린 '김포열병합 설비안정화 및 태안 IGCC 책임정비를 위한 기술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 후 한국서부발전 박형덕 사장(왼쪽), 두산에너지빌리티 정연인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운전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소 성능 및 설비 안정화를 담당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